제633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1년 6월 17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창현 편집국장 : 이형수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기도회

'절반 구워진 빵' (호 7:8-11)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이번 주 화요일(19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기도회가 개최된다. 이 시간에는 '절반 구원진 빵' 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문제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영적 각성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하게 될 모든 이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전으로 경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수요예배 메시지

흩어진 나그네 (행 8:4)

사도행전 8장은 '흩어짐' 으로 시작되고 있다. 1절에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본문 4절에서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기록하고 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흩어지자, 분명히 유대인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을 것이다. 적어도 예수의 무리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음이 즉시로 드러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예수의 무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행 8: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 즉시 놀라운 탄성이 흘러나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즉,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흩어 버리고, 아예 교회를 뿌리뽑겠다고 핍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예수의 명령은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흩어진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 누가 핍박과 고난을 저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투옥되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세속의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현실을 모두 상실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로 '흩어진 나그네들' 이었다.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그들은 이 땅위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 11:13).

그들은 비록 그 '흩어진 곳' 에서 조차 핍박을 받지만,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중인들이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신실한 '중인' 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현실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인가? 안락한 주택, 넉넉한 재정, 인정받음, 그리고 결코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그 '흩어진 나그네' 들은 우리의 삶을 강렬하게 두들기고 있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베드로를 보라! 그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고, 우리가 이 일의 중인이라고 소리쳤으며(행 2:32, 3:15, 5:32, 10:39), 예수를 죽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고발하곤 하였다. 그 덕분에 자신도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행 4:3, 5:18, 12:5), 그가 외친 설교는 유대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흩어진 나그네들' 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베드로를 무척이나 원망했을 것이 분명하다. 왜 핍박을 피해가지 않느냐고 말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치는 핍박의 이유를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니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협상하라고 요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교회 역사가 되었을 것인가?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진실로 역설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핍박을 받았으나 불같은 시련을 견디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에서 소멸되었을 때, 교회는 평안했으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늘 그랬다!

그리스인들은 본질상 '흩어진 나그네들' 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다. 그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창 12:3).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이라고 말씀하셨다. 결코 나에게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들' 즉, '중인' 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로 하셨다. 혹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그 어떤 것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 로 살려는 정직한 헌신이 문제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 1:1,4)

2001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경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이홍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6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신학 칼럼

교회의 종파

기독교는 크게 개신교와 로마카톨릭교회, 희랍정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믿음의 표준이 되며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16세기부터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들이 나타났다. 이런 분열의 원인은 세상과의 타협이다. 사회의 기본구조를 받아들이는 교회나, 세속적인 권력과 타협하는 교회는 특정한 교파를 이루어 분열한다. 교파가 분열하는 상황은 대부분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수락형의 종파로서 사회양식을 도전없이 받아들인다. 이들은 이 사회가 선하고 사람들도 선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한다. 둘째, 공격형의 종파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에 주력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으로 삼는다. 셋째, 도피형의 종파이다. 이들은 수락형이나 공격형의 모든 것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초월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도피형의 종파는 이 세상의 병폐는 고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쉽게 자라간다. 이런 종파는 시한부 종말론 등과 같이 사이비 종파로 번져간다.

결론적으로 교파분열을 초래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교회일치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복음에 헌신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신앙의 근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단체나 교회와의 연합도 있을 수 없다. 먼저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최고의 권위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영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복음은 결코 다른 교파나 종교와 타협할 수 없다.

안 창 덕 (목사, 13교구 지도)

고 이태규 원로장로 교회장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 집례-위임목사)

'천부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고후 5:1-6)

고 이태규 원로장로

금요일(15일) 오전 9시! - 아침 햇살이 하얀 교회당과 돌계단 위에 쏟아져 내렸다. 맑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충현교회를 섬기던 고(故) 이태규 장로의 교회장이 진행되었다.

'영원한 집! -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오는 참된 위로의 소망!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새로운 피조물' -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의 이별도 없는 하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을 뵈올 날을 기대하며, 장례 차량은 그가 숨쉬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던 교회당을 조용히 떠나갔다. "이태규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ermon for next week

Sun of Righteousness

(Malachi 4:2)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Today's message comes from the last book in the Old Testament. It gives us a vivid reference, a truthful vision of happiness in the future. It reads,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v. 2). This beautiful verse explains that whoever fears the name of the Lord God will be totally happy, completely blissful. As human beings, we have only one big decision in front of us; fear the Lord or don't fear the Lord.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outcome of each individual's selection! Those who fear the Lord will be endlessly blessed, and those who don't will be endlessly cursed.

What good things are going to happen to those who choose to fear the Lord? The awesome things that will occur are beyond human imagination. They're so, so glorious and wonderful that we don't even have the words or expressions to describe them.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provides an amazing, tremendous blessing. It depends upon human choice whether this wonderful blessing is received. How important is this decision? Look at verse 1, "For behold the day is coming, burning like a furnace; and all the arrogant and every evildoer will be chaff; and the day that is coming will set them ablaze, says the Lord of hosts, so that it wi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 How severe is the curse? Those who don't fear the Lord, the arrogant and evildoers, will be like chaff set on fire. Like the wonderful blessing, the terrible curse is also beyond human imagination. It's so awful and horrible that our minds can't fathom its depths of despair and suffering. The result of human choice is clear and unchangeable, but the decision is left up to you.

Whoever fears the name of the Lord will have the sun of righteousness shine upon them. Amen! The Bible focuses everything on Jesus Christ, especially His second coming. So, we Christians expect wonderful things to happen. The Bible is filled with the glorious blessings and wonders of Jesus' return. In Christian history, the Day of the Lord always gives us grace.

Jesus Christ is the sun of righteousness. He is the One who is the center of God's system of grace. As an illustration, just look at the earth and see how much we need the sun.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cold and dead. No life form could survive, Jesus needs to be the center of all human life. We have to hold fast and keep Him near. Just like the earth needs the sun to survive, humans need Jesus to live. He's the originator of all good things. He is the sun of righteousness, of everything good. No bad things can come from Him. His sunshine is always bright, clean, and good. From Him every good thing will produce indirect light and heat for absolute effectiveness,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s" (Jam. 1:17). The Lord is the source of all light, physical,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and He does not change,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s".

Whoever trusts, fears, and respects Jesus will receive the sunshine that comes from righteousness. But the terrible thing is that whosoever does not fear the Lord will never have the sun of righteousness. They are blind. They don't even know what day looks like because all they can see is darkness. It's always night for them. They never see sunshine. Can you imagine this earth without the sun? Absolute death. Please think of Jesus Christ in this manner. If you don't have Jesus, you don't have eternal life.

Whenever Jesus' shines upon you, you will rejoice, "you will go forth and skip about like calves from the stall" (v. 2). His sunshine is the light of truth, healing, and agape love. If you live in His sunshine you live with Him. Do you realize how much happiness, joy, and delight you will experience when you go with Jesus? Your life is going to be amazing! You're going to be healthy because all sickness will be healed, and weak people will become strong. Moreover, your life will grow just like the sunshine from the sun gives this earth all its life. Jesus is eternal life. His Word, the Word of Jesus is eternal life. So, the earlier you come to Him the sooner you're going to be better. When He rises in your life, He will give you happiness. For when the sun comes in there is no cold. If you fellowship more and more with Him, you have more and more benefit. He will give you freedom. You will go forth because you're not in jail. You will jump like a calf free from its stall. When calves are set free to enjoy the green grass of the pasture, they jump in joy. So, too, will you leap with joy.

When Jesus forgives sinners, He gives freedom, an eternal privilege. He will give you spiritual responsibility. What a wonderful effect! You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inside, and be made into a new creature that grows in His sunshine. Whenever Jesus is with His people they will eat with eternal food. He will keep them safe. He will sanctify them to grow and grow as a child of God. But there's one condition, fear the Lord. If you do this, you will taste the refreshment of new life, a new creating in your inside. Righteousness is a heavenly blessing. Please come to Jesus Christ. Please fear, obey, and live under His light.

Today is June 24th, and tomorrow, June 25th, marks the terrible Korean War that occurred 51 years ago. Many people died in that war unexpectedly, without fear of the Lord. My friends, no one is promised tomorrow. Make your choice now. Do you want to fear the Lord or not? In our future, we have the choice of receiving a wonderful blessing or a terrible curse. Jesus is the only One who blesses our present life and future life, forever and ever. In Him you find the grace of God beyond all your dreams. In Him you become a child of God that will live in eternal happiness in His Kingdom. How can anyone fully explain the tremendous happiness, joy, good things, better things, awesome things, and on, and on that you will experience in Him. The choice is yours. Amen.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의로운 해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선택

오늘의 메시지는 구약의 마지막 책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미래에 벌어질 진정한 비전으로서의 밝은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 4:2). 이 아름다운 구절은 누구든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온전히 기뻐하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오직 한 가지 큰 결정만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할 것인가 경외하지 않을 것인가?" 각각의 선택은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끝없이 축복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

주를 경외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벌어지게 될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영광스럽고 놀랍기에 우리가 감히 묘사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혜택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에 따르는 저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곧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불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와 같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마찬가지로, 처참한 저주 또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깊이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합니다. 이렇듯 인간 선택의 결과는 명백하고 불변합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재림의 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머리 위에는 의로운 해가 비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영광스러운 축복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의 날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예수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체계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는 마치 지구가 속해있는 태양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해가 없다면 지구는 얼어붙어 죽게 됩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꼭 붙잡고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 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의로운 해요, 모든 선한 것의 태양이십니다. 그로부터 악한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빛은 언제나 찬란하고 투명하며 선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간접광선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을 발산할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주는 모든 빛과 물체와 지성과 도덕과 영의 근원이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그늘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존경하는 자는 의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처참한 결과는 바로 그들이 그 의로운 해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두움만 보기 때문에 낮의 광명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 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밤뿐이며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망일뿐입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

언제든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은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2절)" 그의 햇빛은 진리와 치유와 아가페 사랑의 빛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빛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경험할 기쁨과 행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병이 나음을 얻어 건강하게 될 것이며,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양이 지구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일찍 그분께 나아올수록 여러분은 더 신속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침해처럼 떠오를 때, 그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해가 비추는 곳에 추위가 없듯이 말입니다. 만약 그분과 더욱더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은 더욱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께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기에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송아지들이 자유롭게 나와 들판의 푸른 초장을 즐길 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쁨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분은 자유, 즉 영원한 특권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의 햇빛을 받고 자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영원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안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한 조건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감도 동시에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행한다면 여러분은 새 삶의 신선함, 즉 내적 새창조를 맛보게 됩니다. 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아래서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 빛 아래에서 사십시오.

지금, 선택하라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6월 25일, 바로 51년 전 처참한 한국동란이 벌어진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지 못한 채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뿐 아니라 우리 누구도 내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주를 경외하시겠습니까? 경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처절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행복과 기쁨과 좋은 것들과 그 보다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어찌 인간이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말라리아도 주님의 뜻입니까?

권 요 셉 (R국 단기평신도선교사)

선교사님으로 인해 복음을 알게된 '무나' 라는 여자가 있다. 무나는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고 친가로 돌아갔다. 얘기하자면 긴 사연으로 '무나' 를 알게 됐고 지방 전도를 갔다가 그녀의 집에 들리게 됐다.

'무나' 의 마을은 강한 무슬림 집단이었다. '파길' 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을 아는 자' 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파길' 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다. '파길' 은 미래를 알며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단 한 명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무나' 였다.

'무나' 는 남편으로부터 소박 맞았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 이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왔으니 모두의 경계 대상이었다. '무나' 의 믿음은 오기로 발전했고 자기의 모든 물건에 십자가 표시를 했다. 컴퓨터 자기 양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나' 를 찾아가자 '무나' 는 두 번이나 울며 서러움을 호소했다.

내가 '무나' 에게 세 권의 작은 전도책자를 전해주자 무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을 불렀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그 책자를 보고는 오히려 '무나' 를 책망하고는 가 버렸다. 나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괜찮았는데 '무나' 는 '미안하다' 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쏟아부었다.

금요일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가족단위로 모여 '파길' 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얼떨결에 따라갔다. 모두 '파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나' 도 꿇었다. 모두 내게 눈총을 줘서 난 크리스천이라 의자에 앉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날 경계했다. 그날 난 상당액의 돈을 잃어버리고 말라리아에 걸렸다. 말라리아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직감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말라리아가 아니라며 도와주지 않았다. 오로지 무나만이 날 도왔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내가 '파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시어 저들을 자만하게 하실까? 그러나 나를 부축하러 오는 무나를 보며 생각했다. 그래, 저 영혼 때문에 날 보내신 것 아니겠는가? 무나가 이 마을의 빛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무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내게도…

R국 단기선교사 소식

올 1월에 합류한 최은아, 권요셉 단기선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기에, 이곳에 참으로 잘 적응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아 선교사는 성경학교의 행정과 이곳의 본부의 모든 행정을 처리하면서도 틈이 나는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요셉 선교사는 지방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친구과 되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합니다. 모슬렘 지역이라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 여러 지역 방문으로 두 차례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으나 또 다시 지방 전도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기엽, 최은아 선교사도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었는데,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영일선교사는 3월에 귀국 후 그의 재능으로 컴퓨터를 조립하고, 구입하는 등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컴퓨터를 배치하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것으로 복음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나온자 천국갈 수 없잖아요

압구정동 전도하던 날

한 숙 정 (16교구, 집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자, 일일 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상품정리에 바쁜 상인들과 물건을 고르는 아파트 주민이 몇 사람 있었다. 낯선 곳에서의 전도를 위해 들어선 나는 순간 어찌할까 망설여졌다. "장사하느라 바쁜 저들을 지나쳐야 하나? 붙잡고 전해야 하나? 거절하기가 십상일텐데… 다른 곳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내 안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님! 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려 합니다. 담대함을 주소서"

마음 속으로는 끊임없이 간구하며 눈으로는 대상을 찾느라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물건을 사려은 줄 알고 반기던 상인은, 바쁜데 귀찮다는 의미로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교회 다니니까 다른데 가보라"라며 대뜸 거절했다. "어머! 반갑습니다. 저는 충현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들은 척도 아니하는 상인들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하자 마지 못해 "00교회"라고 하며 빨리 가 보라는 투다. " 정말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일단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중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 생각되는 한 분이 조금 미안했던지 "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며 한 아저씨를 가리켰다. 지목된 아저씨는 "왜 나를 지목하느냐?"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상인들은 내가 그냥 떠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었는지 그 아저씨를 의자에 앉게 하고 전도 받으라며 자신들도 듣겠으니 어서 전하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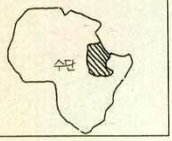
사영리의 4원리를 다 듣고 영접기도는 나중에 하겠다며 영접을 거부하는 아저씨에게, 영접한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다시 영접을 권하였지만 계속 거부하셨다. 이름을 알려 주시면 기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저씨는 끝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듣지 않고 있는 줄 알았던 상인들이 그 아저씨께 일제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라며 나보다 더욱 강하게 권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중에 믿을 것이라며 사양하기에 후일에 꼭 영접하실 줄을 믿겠노라고 말씀을 마치고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전도대원들과 만나기로 한 4시가 지나 약속 장소로 향하며 난,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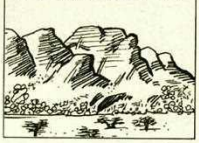
세계 선교지 정보-3

아프리카의 제일 큰 나라 수단(Sudan)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 영토의 절반이 나일강의 중류 및 상류의 분지이며 홍해와 면하고 있다.



수단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이며 기후 또한 건조하여 생활하기 어렵다. 많은 지하자원이 있으나 개발을 못하고 있다.



회교집단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거의 리비아와 이란의 원조로 정부가 유지되고 있다.

1972년의 평화조약과 기독교인(19%)과 전통주의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3년 회교국가로 선포되었다.

회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반란죄로 몰아붙여 강압적으로 제압했다.

수단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프리카에서 회교 혁명을 일으킨 주도자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회교 혁명 때문에 100만명이 죽고, 경제는 황폐되고 나라는 분열되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지난 40년간 있었는데 주일 예배에 폭탄을 던지고 기독교인 마을을 파괴하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했다.

기독교 난민들에게는 개종해야 식량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카르툼과 누바 주변의 산악지대에 피난해 있어 식량과 의료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회교가 장악하고 있는 북부는 기독교가 거의 없고 복음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죠이선교회출판사
'만화로 보는 세계기도정보' 에서 발췌 요약

충현교회 아프리카 R국 선교지 기도제목

* 중보기도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현교인들이 됩시다.

1.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도록
2.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지 지혜를 주소서
3. 함께하는 단기선교사들과 협력선교사, R국 현지인들간에 하나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4. 현지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5. 현재의 사역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 다음주에는 정은희 선교사님의 기도편지를 통해 아프리카 R국의 상황과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R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황 태 용 (72동기, 청년1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갈 5:24)"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부터인가 위의 말씀은 제게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들은 나쁜 것인 줄 알겠지만, '정' 은 왜 나쁜 것일까? 예수님도 잘 믿고 서로를 묶어주는 끈끈한 정도 있으면 좋은 것이지 뭐…!

하지만 이는 정에 대한 나의 막연한 생각일 뿐 실제로 우리 가정에 자리잡고 있는 정의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뿌리깊고 해결하기 힘든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조상을 모시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가집 전통을 따라 어릴 적부터 죽 참석하던 제사를 2년전 부터 참석하지 않게 되면서 가정의 아픔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분들이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이 되신 아버님은 조상 숭배의 책임감 때문에 갈등하셨으며, 저희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끝내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갈등 중심에는 '정' 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가족, 친척간에 화합을 깨는 기독교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제사의 문제를 통하여 정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꽉 잡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신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중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그러하며(창 22: 2)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을 때 각기 칼을 차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형제와 친구, 이웃을 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러합니다.(출 32: 27)

그리스도인은 정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짧은 말씀은, 저희 가정에서처럼 아버님과 나뉘어져야 하는 작은 아픔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며 형제와 친구, 이웃을 쳐야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제사문제를 통하여 아버지의 중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가족 모두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 기도는 하지만 막연하게 아버지와의 관계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부터인가 아버지는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때를 맞추어 1년 반 동안 서먹서먹하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얻게 된 곳이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대전이 되어서, 지금은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아버지는 밥하고 저는 설거지하는 아버님과의 밀월기간(실은 아버님의 시집살이가 맞겠지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버님도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마 과정에 있지만, 오늘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희 충현의 지체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 34: 6)"

산다는 게 뭘까?

한 정 은 (73동기, 청년1부)

"산다는 게 뭘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

"쯔쯧! 그게 사는거야?"

안 믿는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스토리가 뻔하다. 육신으로는 그 뻔한 스토리 안에서 우리도 살고 있다. 그런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긴 여운을 남긴 청년1부 여름수련회의 금번 주제는 '믿음, 그리고 삶' 이었다.

아브라함! 그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가 받은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과,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지 않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불순종이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란 별칭을 갖게 하였다.

목사님께서 계속 이끌어주신 주제말씀의 의도에는 영적인 삶의 원리가 있었고, 그것을 찾아 얻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즐거움과 묘미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몸과 다를 바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절정을 이룬다.

누군가 묻는다.

"왜 그러고 살아?" 속으로는 한 마디 더 한다. "이 바보!"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 분을 믿는다. 예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것이 있으면 만족해 하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불완전한 것일까?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시며, 나는 또 다시 나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기에 오늘도 거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히 3:13-14)

수련회를 돌아보며

복받기 원하세요? 그럼 수련회 오세요

"00야 너 왜 수련회 안 왔니?"

"음— 가려고 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갔어"

" 내가 한번 더 전화할 걸 그랬구나. 그런데 수련회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참여하고 보는 거지"

그렇다. 수련회는 갈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무조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린 청년1부의 수련회도 마찬가지였다. 참여한 자에게는 영적인 풍성함을 채우는 기회였다.

지도 이홍성 목사님의 세 번에 걸친 주제강의와 주제별 Workshop,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책 · 음반 전시회와 공동체시간, 그리고 찬양집회로 이루어진 수련회는 1박2일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제강의를 통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안에서 "믿음 그리고 삶"을 보았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우리의 나아갈 바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잊어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뿐이었다.

이번 수련회는 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 수련회였다. 몇 달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임원과 수련회 준비위원들과 찬양팀원들, 말씀으로 채워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밤을 꼬박 세우며 주제별 Workshop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맛있는 식사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집사님,권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1부의 희망을 보았고, 부흥을 꿈꿨다.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시며 비전과 부흥을 꿈꾸게 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미라 기자)

만평

글 · 그림 : 김범현

집을 놓으세요

간증과 나눔

일터에서

또 다른 명령

최 창 하 (집사, 13교구)

지난 대학시절을 돌아보면 취업을 하기에 앞서 직업과 세계관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며 고민하던 생각이 난다. 일을 통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소명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려 했고 "성경적으로 직장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에 따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첫 직장인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약정(매출개념)과 손님의 수익이 꼭 일치하지 않을 때(입사한 94년부터 IMF를 맞은 97년, 98년까지는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회식자리라곤 늘 술 취함이 가득한 문화뿐인 직장생활이 괴롭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소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에 대한 생각들은 점점 퇴색해 갔고, 나의 관점은 내가 처해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들에 집중되었다.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 정직하지 못한 직점장님의 비리와 고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상사의 터무니없는 행동, 그리고 술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은 늘 한결 같았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무런 갈등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연봉은 직장을 옮기는 충분한 이유가 됐고 나아가 창업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더 좋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막연하지만 How(어떻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연치 않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증권업계에서 잠시 직장을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회사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바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선 직장 속의 나에게 적어도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성공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알게 하셨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속에 있고 더욱이 그곳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잘 다스리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 (창 1:28)

무엇보다도 피하고 싶었던 문화 속 갈등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인 모습을 지켜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갈등과 어려움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정임을 또한 알게 하셨다. 직장이라는 선교현장에서 선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복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또 다른 명령이기도 함을 알게 하셨다.(마 28:19~20)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기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만 오늘도 출근하여 책상 앞에서 기도한다. "저의 이 직장이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선하고 성실히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공 재 학' 성도를 소개합니다

(사진 왼쪽이 공재학 성도, 사진 오른쪽은 인도하신 따님)

황해도 출신. 3남1녀를 두고 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서 교회 나가라는 권유를 많이 받게 되어 아내와 딸이 다니는 충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교회에 나온 첫 느낌은 목사님들과 직분자(권사,집사)들이 무척 열심히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새가족부 교육을 받고 보니 전혀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찬양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 찬송 부르기 대회에 앞에 나가 찬송을 부른 것이 무척 쑥스럽기도 했으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에 남고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주일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결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한다.

'김 정 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15년 전에 잠시 충현 교회에 다녔으나 결혼해서 시댁이 불교인지라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 언니와 형부의 인도로 다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어 마음이 기쁘다. 15년 전에도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에 눈물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온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든다. 매 주일 담임 선생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해주신 언니와 형부 내외께 감사드리고 좋은 직장에 있게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김재수 집사(남72세) 비인두암으로 강남 시립 병원 593호에서 투병 중 입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와 더불어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교구 홍동선 성도(남57세) 목에 혹이 생겨 검사한 결과 후두암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탐방 - 2교구

약속의 자녀

8교구 3지역 강변 우성 구역

"전철에서 쭉 걸어 내려와 주택은행을 지나 동양마트를 지나고 영화수첩 코너로 들어서 4번째 집입니다…" 전화로 불러 주시는데로 적어 들은 쪽지를 보고 이리저리 찾아가는 길이, 길 눈이 특별히 어두운 내게는 쉽지 않다. 길을 찾아가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위에 꼬불꼬불 닫혀진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을 떠올려본다.

전화로 안내받은 구역예배 장소에 도착하니 시간 엄수가 기본이시라는 8교구 3지역 강변 우성 식구들이 모두 모여 계셨다. 나이와 형편이 비슷하여 쉽게 하나가 되었다는 윤순효 · 김숙희 권사님, 김영미 구역장님, 배순영 · 박귀자 · 이인숙 집사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에 빠져들며 찬송 405장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오늘의 본문,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누려야할 약속의 자녀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 하나님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지난 날들을 간증하셨다. 어린 시절, 선교사로부터 뿌려진 복음이 모진 세월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어 오늘날 믿음의 어머니로 서게 하신 예수님, 병명도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시들어가는 인생에 치료의 손길로 찾아오신 주님이 이젠 모든 가족의 주인되어 주신 예수님, 시댁의 종교따라 뜻도 모르는 불경을 외며 보내던 갈등의 시간 속에 진리로 찾아주신 예수님… 이 분들의 공통된 간증은 자신들이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기까지 누군가의 애틋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역 식구 모두 태신자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길 약속하며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인생의 연륜만큼 다져진 권사님의 음식 솜씨는 늘 그리운 친정 엄마가 차려주시는 손길 그대로였다. 이제 자녀들 다 키워 놓으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를 애쓰시는 8교구 강변 우성 구역 식구들의 사랑이 차고 넘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로 흘러내리길 소망한다.

(박영선 기자)

오늘의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397장)

미국의 침례교 목사 존 헨리 에잇츠(1837-1900)가 1891년에 작시하였고 같은 해 아이라 데이빗 생키(1840-1908)가 작곡한 찬송이다.

이 찬송은 요한일서 5:4을 소재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고무 · 격려한 찬송시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서 있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요한 자신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다(요일 5:5). 다시 말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다.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며 배려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천국학교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00동에 사는 용욱이예요. 00 초등학교 3학년이구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 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2·3·4·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리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모두 넷이예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박스만해서 네 명이 다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00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성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 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이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에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 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최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엄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래의 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외치하는 한 어린이가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후 쓴 감상문인데, 중언의 성도와 함께 나누고자 한 성도가 투고한 것입니다.

그 날 교회에서 전 계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울이 아파서 누워 계신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 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중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 날에는 그 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 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 날 엄마는 몸이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몸이몸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엄마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다섯 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져 깜짝 놀랐어요. 펴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하고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 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 오셨지만 사실은 예 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애,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원도 주셨구나"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구 여기서 계속 사는거야?"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엷게 하시고 나선 것이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구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욱아,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이야"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진리의 샘

이사야(Isa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❶

'구약의 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서' 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 39권, 신약의 27권과 평행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성경의 축소판처럼 이사야 1장~39장까지는 구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고, 이사야 40장~66장까지는 신약적 관점으로 메시아의 대속과 구속 그리고 그의 위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사야'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사야' 라는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 '예사야후' (Yeshayahu)를 짧은 형태로 번역한 것으로써,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 였으며(사 1:1), 유대전통에 따르면 그는 왕족의 후손으로 '아마시아' 왕의 형제였고 '웃시야' 왕의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선지자였고(사 8:3), '마할살본 하스바스' (사 8:3, 노략이 신속함)와 '스알야숩' (사 7:3,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시기와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탈무드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왕하 21:16, 히 11:37).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아주 정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사 1:10/ 2:3/ 7:7/ 17:3,6/ 19:4/ 21:17/ 22:14/ 28:14/ 31:9/ 38:4/ 39:5,8/ 55:8/ 59:21/ 66:5,17 등에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 이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는 정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기도 했지만 타협하지 않았고,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을 신랄하게 고발하기도 했답니다(사 5:8,11,18,20,21,22/ 10:2,5/ 28:1/ 29:15/ 30:1/ 31:1/ 33:1/ 45:9,10 등에서 '이사야' 는 '화 있을진저' 라고 격렬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마음은 부드러웠으며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고, 마치 사랑이 풍부한 어머니처럼 유다 백성을 향하여 권고하기도 했답니다. 그의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하신 성전을 목격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며(사 6:1), 결코 그 누구도 그를 세속화시키지 못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배교와 영적인 혼란함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의 이러한 성품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배 병 호 (에바다부 교사)

기독교 백화점에 들러 성구를 새긴 서각판을 둘러보았다. 하나 같이 마음에 길이 간직하고 싶은 말씀들이 여러 모양의 목판에 새겨져 있었는데 내가 찾는 말씀만은 끝내 발견 할 수 없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복음으로 율법을 대체하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사랑은 줄 때나 받을 때나 기쁨으로 감정을 흡족하게 한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대상은 있고 하라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 하여도 하게 되는 것이 본능적인 사랑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실 말씀이 없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랑. 한없는 인내와 관용과 자기 손실을 동반하는 사랑을 하라 하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는 서로 극진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칭찬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인지상정에 따른 사랑일 뿐이다.

예를들어 공교육이 피폐화 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날로 심해져만 간다는 집단 따돌림(왕따) 문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 학생들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실천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심으로써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 우리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왕따 피해 학생편에 서서 적극 감싸준다면 우리의 학원이 얼마나 화평해질까.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집으로 이사한다. 그 때엔 반드시 내가 찾는 말씀이 적힌 서각판을 찾아내어 식구들이 모이는 작은 거실 벽에 걸고 싶다. 아픈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주님
생의 슬픔, 비애의 뜨락에서
홀로 쪼그리고 앉아
봄 햇살 그리듯 당신을 그릴 적에
이 가슴 한복판에 긍휼의 샘물을 흘리시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교 회 소 식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18일(월) 새벽기도회 後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19일(화) 새벽기도회 後
   장소 : 교육관 109호
3. 찬양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찬양예배 後
   장소 : 찬양위원회실
4. 남녀전도회 임역원 영성훈련
   일시 : 21일(목) 19:00
   대상 : 각 남녀전도회 (회장 · 부회장 · 서기 회계 · 전도부장)
   장소 : 갈릴리홀
5. 봉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봉사위원회실
6. 권사 3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수) 수요1부예배 後
   장소 : 영아부실

남녀 전도회

1. 바울 2지회 월례회 및 노방전도
   일시 : 23일(土) 16:00
   장소 : 영아부실(선교관1층)
2. 바울 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3. 바울 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202호(신혼가정부실)
4. 바울 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아멘홀
5. 바울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갈릴리홀
6. 바울 10지회 월례회
   일시 : 30일(土) 18:00
   장소 : 국민대 도서관 뒤 식당
7. 바울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구모임 장소
8. 바울 1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영아부실
9. 바울 1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육관 414호
10. 베드로 2지회 월례회 및 노방전도
    일시 : 23일(土) 16:00
    장소 : 영아부실(선교관1층)
11. 베드로 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구모임 장소
12. 베드로 10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9:30
    장소 : 풍전식당
13. 베드로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육관 212호
14. 요한 2지회 월례회 및 노방전도
    일시 : 23일(土) 16:00
    장소 : 영아부실(선교관1층)
15. 요한 1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9:00
    장소 : 성낙현 집사댁(☎687-9337)
16. 한나 2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수) 수요1부예배 後
    장소 : 갈릴리홀
17. 한나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육관 314호
18. 한나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만나홀
19. 에스더 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구모임 장소
20. 에스더 2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수) 수요1부예배 後
    장소 : 갈릴리홀
21. 에스더 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육관 201호
22. 에스더 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스리랑카홀
23.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아멘홀
24. 에스더 8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구모임 장소
25. 에스더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갈릴리홀
26.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일시 : 24일(다음주일) 15:00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27.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칼빈홀
28. 에스더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탁아부실
29.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베다니홀
30.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교육관 414호
31. 루디아 1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월) 10:30
    장소 : 영아부실(선교관1층)
32. 루디아 4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목) 11:00
    장소 : 영아부실
33. 루디아 6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1:00
    장소 : 유아부실(교육관2층)
34. 루디아 8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後
    장소 : 제2교육관 4층
35. 루디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목) 11:00
    장소 : 성향록 집사댁(☎032-518-0519) 인천 부평 산곡2동 경남Ⓐ502-1603
36. 루디아 17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1:00
    장소 : 강민경 집사댁
37. 미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0:30
    장소 : 신혼가정부실
38. 미리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화) 11:00
    장소 : 계산동 그랜드 마트 공원

별 세

1. 신용복 성도
   (신우재 집사 부친, 구자남 권사의 시부, 2교구) / 12일 별세, 15일 장례
2. 노봉관 집사
   (편무산 집사의 처, 15교구 신림1구역) / 12일 별세, 14일 장례

결 혼

1. 이영준 군(이계인 장로, 김은숙 권사의 아들, 2교구)과 김현윤 양(김보균 씨, 이문경 집사의 딸) / 22일(금) 12:30 갈릴리홀

주소변경

1. 정금연 집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132-5 8/4 ☎ 031-918-9941
2. 김상철 집사, 정애화 집사 중랑구 면목3동 1073 용마 한신2차Ⓐ101-311 ☎ 491-1581

권사회 수련회

원로, 은퇴, 시무 권사님 모두가 참여하시어 잠자던 영들이 깨어나고 권사로서 덕을 세우며 마음 가득히 말씀을 채워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 성령충만을 받으라 일시 : 25일(월)~26일(화) 10:0
장소 : 갈릴리홀

'잃은 양 찾기' 장년1부 총전도집회

일시 : 24일(다음주일) 12:30 장소 : 교육관 407호

중등1부 학부모 초청 예배 및 간담회

일시 : 24일(다음주일) 09:00 장소 : 교육관 414호

12교구 예수사랑 큰 잔치

'전하자 예수! 구원하자 한 영혼!'

일시 : 24일(다음주일) 교구모임시 장소 : 베다니홀

군전도회 하기수련회

일시 : 2001년 6월 18일-19일
장소 : 충현기도원(031-765-5472)
대상 : 군전도회 전회원 및 관심있는 성도

*군전도회(본당1층)에서 접수 중

교회오시는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초등부 초청 전도잔치 - 총동원 주일

"너도 나도 전도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자"

5월13일부터 오늘까지 초등부에서는 초청 전도잔치 기간으로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새로 나오게 될 어린 친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등부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소 : 탁아부 예능과 교사 모집

- 2과 1명(08:30~10:30)
- 3과 1명(10:00~12:00)
- 4과 반주자 1명(13:00)
- 문의 : 김재호 집사(☎011-531-9949)

2001년도 의료선교의 날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충현의료선교부의 지원 아래 외국인 형제 · 자매들과 함께 '의료선교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의료진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번 행사에 주변에 많은 외국인 형제 ·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4일(다음주일) 10:00~16:00
장소 : 제2교육관 1층(코이노니아홀)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방과

입양가족 초청
민박을 원하는 가정 신청바랍니다

교회는 해외 입양아 및 입양가족을 초청하고자 하여 민박 가정을 신청 받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기간은 7월7일(토) 오후 3시에서 다음날인 8일(주일)까지로 1박2일입니다. 초청 가족은 20가정으로 54명입니다.

민박을 원하는 가정은 선교위원회나 각 교구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는 선교위원회(35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06	백용찬	2	청년1부		517	성성경	19	청년1부	이진규(7)
507	이경은	1	청년2부		518	장영진	19	청년1부	유복심(2)
508	이영숙	3	에스더	차옥진(3)	519	양진혁	19	청년1부	박은진(2)
509	서진혁	3	대학부	차옥진(3)	520	김광명	19	청년1부	
510	서유나	3	중등부	차옥진(3)	521	박영민	19	대학부	민정현(19)
511	김지은	7	청년2부		522	이혜원	19	청년1부	
512	김진업	8	바울	유충곤(8)	523	이정원	19	청년1부	
513	오혜숙	12	루디아	김경인(11)	524	김진성	19	청년1부	
514	윤은미	15	청년2부	장원동(11)	525	이지연	19	청년1부	
515	김성국	15	청년2부	장원동(11)	526	이덕진	14	고등부	
516	김민	19	대학부		527	조덕진	11	청년2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성경연구원감),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교구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봉사위원장)
엄필성 (청년3부장), 강모용 (봉사위원), 오정헌 (1교구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3교구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유아원감), 김종구 (17교구장), 최무길 (예배위원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사랑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봉사위원),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전도위원장), 박인건 (13교구장), 김인관 (6교구장), 이병옥 (제3교육위원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7교구장), 임무천 (제2교육위원장), 이종섭 (청년2부장)
최기홍 (예배위원),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건축위원장), 전홍렬 (9교구장)
이정우 (새가족부장), 김단용 (제1교육위원장), 황영일 (건축위원), 손 철 (4교구장)
한송규 (신혼가정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전도위원), 김환기 (기획위원)
원용철 (12교구장), 이형수 (청년1부장), 안동현 (아멘찬양대장), 황의만 (대학부장)
김구형 (고등부장), 최윤덕 (실로암찬양대장), 이계인 (임마누엘찬양대장), 박덕양 (예배위원)
이태식 (10교구장), 정태두 (전도위원), 박홍규 (가브리엘찬양대장), 권명옥 (벧엘찬양대장)
조종환 (청년2부 부감), 배춘식 (영아부장), 김영달 (사무국 관리과장), 이실호 (중등3부장)
박찬섭 (예배위원),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교구위원회), 이종대 (소망부), 정현민 (1교구), 김동하 (출판국), 차병준 (선교위원회)
김병태 (15교구), 서광진 (2교구), 정해성 (3교구), 이준경 (9교구), 박인기 (에바다부)
여성기 (10교구), 류병회 (대학부), 노경묵 (17교구), 이종철 (11교구), 김영훈 (고등부)
여국근 (12교구), 김교성 (16교구), 송길환 (외선부), 이수근 (8교구), 이유진 (5교구)
안창덕 (13교구), 방준영 (4교구), 나광영 (6교구), 정진호 (7교구)

■ 선교사

정은희 (아프리카), 권영일 (아프리카), 최은아 (아프리카), 권요셉 (아프리카)
아브라함외 47명 (아프리카)
추진회, 이소영 (스리랑카) 추은희 (우간다)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방글라데시)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강기엽(아프리카)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소년부

■ 여전도사

정연회 (14교구), 김정자 (3교구), 송향자 (17교구), 신동자 (5교구), 윤인숙 (1교구)
김옥윤 (9교구), 한영준 (11교구), 김연식 (2교구), 홍순애 (6교구), 이옥주 (4교구)
김말자 (8교구), 안태순 (7교구), 최효심 (15교구), 백명자 (12교구), 김정연 (10교구)
조옥자 (고등부), 강덕필 (16교구), 김정신 (대학부), 장혜구 (청년1부)

■ 교정전도사 박양덕